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57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4일

발의의원 : 홍인표, 김규학, 김대현,
김병태, 김재우, 김지만,
서호영 의원(7명)

주 문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회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영남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 십여 년 간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필요한 지역갈등만 유발시킨 채, 표류하는 동안,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적 재도약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왔던 과거를 정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자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은 2015년 1월,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에 입지선정을 일임하며, 그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고 합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구·경북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며, 이전부지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용객수는 시설의 수용한계인 375만명을 초과하여, 400만명을 돌파하였고, 특히, 국제선 이용객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의 예측수요 45만명보다 무려 450% 이상을 초과하는 204만명을 2018년에 이미 기록하는 등 대구공항의 시설이 우리 대구경북 항공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사업임을 정부는 각인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을 이전하여 건설하게 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이나 치솟고 있는 지역의 항공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군공항 이전사업이 중심임을 강조하며, 국방부만 바라보고 있다.

국방부 또한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산출해 낼 수 없는 이전사업비 산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인 통합신공항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여론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십여 년간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온 영남권 신공항이 더 이상 민심을 흔들고 분열시키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신공항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하라.

하나,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지연시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최정예 강군육성과 최상의 전투력 유지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지역에 합리적인 시설규모로 조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구·경북의 각 지역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제안이유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인프라 건설에 소외된 지방은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끝없는 경제침체와 급격한 인구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특히, 국가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도시 및 지역 간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에 따라 관문공항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미래산업육성에 가장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의 항공시설 이용 여건은 수십년 동안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영남권 신공항은 십 수년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채,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대신 갈등과 반목만을 유발시켜왔고, 백지화와 재추진을 수차례 반복해오다, 결

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 내렸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해 매우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어,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함.

이 송 처

가. 국회 :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나. 정부 :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교통부